신임 농진청장에 조재호 한농대 총장

농식품부 정책 전문가

총장 재임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남다른 노력 기울여

신임 31대 농촌진흥청장에 조재호(56·사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이 선임됐다.

조재호 신임 농촌진흥청장은 충암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요크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조 청장은 행시 34회로 1991년 공직에 입문해 농식품부에서 통상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두루 거쳤다.

이후 국제협력국장, 농업정책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촌정책국장을 지냈고 1급 직책인 차관보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농식품부 산하 3년제 국립대학인 한국농수산대 총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한농대 총장 재임당시 청년농업인 육성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대상' 교육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 조재호 신임 청장 프로필

▲경남 밀양(67년생) ▲충암고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 ▲영국 요크대 대학원 경제학과졸 ▲행시 34회 ▲농식품부 통상협력과장 ▲駐벨기에 1등서기관 ▲유통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국제협력국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검역본부장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차관보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전북농협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도내 240여 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가공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식품안전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식품안전관리 철저 바른 먹거리 유통 '앞장'

전북농협, 도내 240여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등 대상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14일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도내 240여 개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가공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식품안전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최근 기온이 점차 오름에 따라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식품 보관 온도 유지, 유통기한 준수, 작업장 위생관리 등 각 매장별 중점관리 사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매장별 식품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안내문도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농협은 소비자에게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식품부터 과일, 채소, 육류, 어패류 순으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구입한 식품은 상온에 1시간 이내 두지 말고 즉시 냉장고에 넣기 등 식품안전 실생활 적용 유의사항을 안내해 고객 건강관리에 앞장설 예정이다.

정재호 본부장은 "최근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외식하는 시민들과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무엇보다 식품안전이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한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준수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서부산림청, 백두대간 사랑운동 · 산림정화 캠페인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2일 장수군 번암면 봉화산을 찾은 등산객을 대상으로 백두대간 사랑운동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나라 핵심 산줄기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캠페인으로, 봉화산 입구에서 철쭉군락지까지 걸으면서 쓰레기 및 산림 내 폐기물을 줍는 산림정화도 실시하며 등산객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이경호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이번 캠페인은 국민들과 함께 가꾼 백두대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라며, "우리가 누리는 백두대간의 혜택을 후대들도 누릴 수 있도록 보전·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13일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회장단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원로 회원 및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건협 전북도회, 원로회원 · 윤리위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지난 13일 원로회원 및 윤리위원,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원로 회원 및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현호)를 열고, 협회의 현안사항과 주요업무 등을 설명했다.

또 협회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참석자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최현호 위원장은 "최근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런 때일수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경영의식과 실천으로 건설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건설인들이 사회공헌, 윤리경영, 상생경영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여 사회적 역할을 원로회원들과 윤리위원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올 최고농업기술 명인을 찾습니다

농진청, 내달 3일까지 후보자 모집

식량 · 채소 등 5개 분야 각 1명씩 선정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을 찾는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오는 6월 3일까지 2022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은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 농업인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5개 분야에서 각 1명을 선정하며, 지난해까지 총 60명의 농업기술명인을 지정했다.

농업기술명인 후보 신청자는 현재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동일 영농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기술, 가공, 유통, 상품화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최고수준의 기술을 다른 농업인에게 보급·확산하며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다른 농가 및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 지도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과 가공시설 등을 현장 교육장으로 개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농촌진흥청 누리집->정책홍보->새 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류 작성 후 거주지역의 시·군 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접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명인 선정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1차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출 서류를 토대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농업기술원 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서류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을 선발한다. 3차 심사에서는 농촌진흥청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최종 서류심사(30%)와 현지 심사(70%)를 실시해 10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00만 원, 인증패, 핸드프린팅(기념 손찍기) 동판을 수여하며, 생산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인증표'를 부착할 수 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과 정책 발굴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농업기술명인 모임체인 명인회 류지봉 회장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은 물론 농업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농업기술명인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조은희 과장은 "농업기술명인들의 위상 강화와 역량 발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기술명인이 보유한 우수한 농업기술이 계승될 수 있도록 청년·후계 농업인과 명인 교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중소기업 주간 맞아 오늘부터 20일까지 전국서 행사 개최

중소기업계 최대 축제인 제34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전국 17개 시·도에서 16일부터 20일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 열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축제인 만큼 중소기업계도 다시 생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매년 5월 셋째 주를 '중소기업주간'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62년 설립돼 올해로 창립 60주년도 함께 맞이한 만큼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을 주제로 지난 60년을 돌아보고, 중소·소상공인의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한 80여개 행사·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31개 중소기업단체와 지원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고 29개 정부부처·광역지자체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4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오프라인 행사의 제약이 풀린 만큼, 전국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축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사진전', '중소기업 인식개선 IDEA 전시'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행사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중소·소상공인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화합과 사회공헌을 위한 행사도 다수 열린다. 특히, 20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최하는 경기중소기업협동조합 플로깅 챌린지는 주목할 만하다. 지역 중소기업계의 단합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작은 음악회, 인천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기-UP 소통데이, 서울협동조합 임직원 한마음산악회, 메인비즈 회원포럼 등이 열린다.

아울러 중소기업 현안 논의 및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설명회도 준비돼 있다. 우선,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근 원자재값 폭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더욱 벌어진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 ESG경영·기업승계제도 설명회,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토론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지역상생 협의체 간담회, 인천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지상좌담회, 중소기업 간접수출 정책포럼 등이 열린다.

한편, 행사일정·장소 등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jugan.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기자

국민연금, 우리은행과 협약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보이스피싱 위험에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과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신저피싱 등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를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사례 공유, 대처요령 안내, 수급자지원 사업 홍보 등 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및 수급자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 신규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보험 무상 가입과 금리·수수료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 금융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3일 전북 관내 어린이 및 초등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허그팜(Hug Farm)금융교육'을 실시했다.

허그팜 금융교육에서는 참가 학생들이 일일 은행원이 되어 통장개설 및 핀테크기술을 활용한 소액결제 등 다양한 금융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진로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 학생들에게 우리 농산물과 쌀 가공식품 등을 '허그팜Farm 마켓'을 통해 직접 구입해 볼 수 있도록 농산물 상품 교환권을 제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장경민 본부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 참여형 금융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과 우리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먹거리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교육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한전 전북-에코에너지원, 협약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본부장 김영환)는 지난 13일 남원시에 소재한 바이오매스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인 에코에너지원 주식회사(대표이사 유성민)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 사업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배전선로에 근접한 수목을 가지치기 한 후에 발생하는 산물을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산림 바이오매스 자원의 확보 및 효율적 처리를 위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원 사업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적이면서 국내 기후변화 배출 저감 실적에 이바지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한전 전북본부에서 수목 가지치기 후 발생한 산물을 에코에너지원에서 목재펠릿으로 재활용해 발전 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